

〈특집 : 만당 김상현 교수의 학문세계와 그 계승〉

## 신라 淨衆無相과 大聖慈寺의 창건

곽뢰\*

### 〈목차〉

- I. 머리말
- II. 大聖慈寺의 창건과 淨衆無相
- III. 정증무상과 당현종
- IV. 맺음말

### [국문초록]

그동안 중국의 사천지방에서 활약하였던 신라 淨衆無相(684~762)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무상 선사가 초기 선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문제, 티벳불교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무상의 선사상 등을 다룬 연구논문들이 한·중·일 삼국의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증무상에 관한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검토해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정주무상과 대성자사(大聖慈寺)의 창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쓰촨성 청두시 대성자사는 안사의 난 때 당현종(唐玄宗, 685-762, 재위 712-756)의 지원으로 건설된 후 점차 서남(西南) 제일의 사찰로 발전하였다. 정증무상은 신라 왕족으로, 당현종이 피난할 때 대자사의 건립 과정에서 규제(規制)를 세우라는 명을 받아 발기부터 입제(立制)까지 무상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무상은 당나라 선종 진승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었지만, 대성자사와 맺은 관계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불교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면 무상의 입당과 수행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불교에 대한 당현종의 태도와 연계하여 이것이 무상에게 대성자사의 규제를 맡긴 원인임을 밝혔다.

□ 주제어

신라, 사천, 정중무상, 당현종, 대성자사

---

## I. 머리말

그동안 중국의 사천지방에서 활약하였던 신라 淨衆無相(680~762)<sup>1)</sup>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무상선사가 초기 선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문제, 티벳불교에 미친 그의 영향력, 그리고 무상의 선사상 등을 다룬 연구논문들이 한·중·일 삼국의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일본학자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은 먼저 서남(西南) 선종의 계보를 기술한 『역대법보기』를 중심으로 무상의 행적과 선법의 특징을 논술했다.<sup>2)</sup> 오니시 슈야(大西修也)도 정중사(淨衆寺) 연혁을 정리하고 무상의 역할을 논했다.<sup>3)</sup> 가마타 시게오(鎌田茂雄)는 당나라 선종을 소개하면서

---

1) 무상의 생몰년에 대한 검토는 이규완의 연구를 참고했다. 「정중 무상의 선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1, 25~37쪽.

2)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京都: 法藏館, 1967, 283~285쪽.

정중종(淨衆宗)을 강조하고 무상을 포함한 정중종의 계보(系譜)를 정리하며 무상과 토번의 관계도 언급했다.<sup>4)</sup>

한국학계에서 무상과 마조의 관계를 추적한 사람은 민영규이다. 그가 1991년 사천지역에 들어가 무상의 유적지를 답사하여 『세계일보』에 발표한 「四川講壇」이 바로 그러한 추적작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sup>5)</sup> 민영규의 작업은 해방 이후 국내 불교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무상의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확인함으로써 무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무상 선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집적물이 바로 『淨衆無相禪師』라는 단행본이다.<sup>6)</sup>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논문은 물론 무상에 관한 주변자료들까지 거의 망라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2009년에 출판된 『정중무상대사』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되어온 무상 선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노작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최근까지 무상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선불교와 관련이 있다.<sup>8)</sup>

3) 大西修也, 「成都万仏寺(淨衆寺)の開基と新羅國僧無相について」, 『美術史研究』 9, 1972, 60~70쪽.

4) 鎌田茂雄著, 關世謙譯, 『中國佛教史』, 臺北: 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 1982, 204~205쪽.

5) 閔泳珪, 李千石, 「四川講壇: 初期禪宗史和劍南宗」, 『동방학지』 75, 1992, 193~211쪽.

6) 불교영상회보 편, 『정중무상선사』, 서울: 불교영상회보사, 1993.

7) 변인석, 『정중 무상대사』, 한국학술정보, 2009.

8) 정광균(법상),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 -정중무상을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34, 2020, 201~249쪽; 덕립스님(이병진), 「정중 무상 인성염불의 증입원리 고찰」, 『한국선학』 54, 2019, 57~84쪽; 차차석, 「정중무상의 인성염불과 청화선사의 염불선」, 『禪文化研究』 18, 2015, 191~228쪽; 신정운, 「무상대사(無相大師)와 마조(馬祖)의 사법(嗣法)에 대한 재고(再考) -현실적인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하다-」, 『禪文化研究』 12, 2012, 165~195쪽; 이규완, 「정중 무상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준규, 「新羅 淨衆 無相 研究」, 동국대

중국과 대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무상과 대성자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대체로 선종에 대한 공헌을 중시한다. 호적(胡適)이 하택신회(荷澤神會, 684-758)의 선법을 고찰할 때, 사천(四川) 지역 선종에 대한 무상의 공헌을 지적하였으나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sup>9)</sup> 풍우란(馮友蘭)은 정중무상의 선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sup>10)</sup> 인순(印順) 법사는 무상과 정중사(淨衆寺) 일파 선법의 특색을 탐구하고 무상을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하나로 여겼다.<sup>11)</sup> 염운화(冉雲華)는 불교문헌과 돈황 사본, 그리고 신라 사료를 이용하여 무상의 당나라 행적을 재구성하였다.<sup>12)</sup> 엄경망(嚴耕望)은 중국과 신라 문화교류의 맥락에서 무상의 행적을 탐구하며, 무상의 선종 계보 위치를 자세히 고증하면서, 대성자사를 계획한 '신라 전선사(全禪師)'가 바로 무상이라고 추정했다.<sup>13)</sup> 엄세위(嚴世偉)는 무상이 일찍부터 두타행을 수련했다는 단서를 잡고 그 수행 위치를 조사하여, 승려의 산림수행과 파촉(巴蜀) 지역의 관계를 분석하였다.<sup>14)</sup>

이렇게 정중무상에 관한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검토해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정주무상과 대성자사(大聖慈寺)의 창건에 대한 배경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성자사는 약칭으로 대자사(大慈寺)로 불린다. 성도(成都, 지금의 중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용현, 「정중무상(淨衆無相)의 능엄선(楞嚴禪) 연구(研究)」, 『백련불교논집』 5, 1996, 31~59쪽.

9) 胡適, 『神會和尚遺集』, 上海: 上海亞東圖書館, 1931, 173쪽.

10) 馮友蘭, 『中國哲學史』, 上海: 商務印書館, 1935, 782쪽.

11) 釋印順, 『中國禪宗史』,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7, 114~116쪽.

12)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中國佛教文化研究論集』, 臺北: 東初出版社, 1990, 42~64쪽.

13) 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嚴耕望史學論文集』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955~958쪽.

14) 嚴世偉, 「山林與僧侶 -從無相和無住的頭陀行看巴蜀的佛教地理-」, 『唐研究』 26, 2021, 27~57쪽.

국 쓰촨성 청두시)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송 문헌에서는 항상 전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남송 이후의 문헌은 대부분 약칭을 사용한다. 북송 이지순(李之純)의 「대성자사 화기大聖慈寺畫記」에는 이 절의 규모를 기술되어 있다. 규모나 면적에서 당시 대성자사는 서남부지역의 제일 큰 사찰이었다.

총 96개의 원에는 각·전·탑·대청·방랑이 무려 8,524칸이다.<sup>15)</sup>

(總九十六院, 按閣殿塔廳堂房廊, 無慮八千五百二十四間)

발표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당나라 중기의 대성자사 건립에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全禪師, 金和尚)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이 중책을 맡게 된 것은 당현종(唐玄宗, 685-762, 재위 712-756)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 불교 문헌에는 무상이 감통(感通)에 능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 그와 함께 무상이 신라 출신이라는 점이, 전란을 겪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현종으로 하여금 무상에게 대자사의 규제를 세우라는 명을 내리고 창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본문에서 밝히고자 한다.

무상의 전기가 수록된 문헌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본문에서 주로 『송고승전』과 『불조통기佛祖統紀』에 의거하여 현종의 명으로 대성자사 창건에 무상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 『불조통기』은 한나라 사마천의 『사기』 장르를 모방한 것으로 『종원록宗源錄』과 『석문정통釋門正統』을 기초로 하여 편찬된 기전체(紀傳體) 통사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나라 때 편찬한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 이 책은 '정사의 예를 그대로 모방하여 교문을 바른

15) 李之純, 「大聖慈寺畫記」, 『成都文類』 卷45, 北京: 中華書局, 2011, 867쪽.

맥으로 삼는다는 취지(全仿正史之例, 大旨以教門爲正脈)<sup>16)</sup> 라고 기록하였다.

[표 1] 무상의 전기가 수록된 문헌

문헌	편명	작성연도	비고
역대법보기	정중사 무상선사	774년	작성년대, 당 대력 9년
송고승전	권19, 감통편, 당성도정중사 무상전	988년	당(唐)·오대(五代)·송초(宋初)의 고승 전기를 수록한 것으로, 정전(正傳) 533인, 부견(附見) 130인을 수록하였다.
경덕전등록	권4 익주무상선사	1004년	도원(道源)이 1004년에 지은 불서, 무상 관한 행적기록 없음, 이름만 있다. 인용할 수 없다
불조통기	권40, 신라 김선사	1269년	『四庫全書總目』에 이 책은 '정사의 예를 그대로 모방하여 교문을 바른 맥으로 삼는다는 취지(全仿正史之例, 大旨以教門爲正脈)'라고 한다.
신수과분육학 승전	권30, 定學편, 무상	1366	이 책에 실린 승전들은 짧고 간결하다. 후대의 독자들이 '문장이 많으면 귀찮고, 문장이 적으면 의미가 많다'는 것을 원한다면 이 책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신승전	권7, 무상	1419년	명성조 영락제가 중국 고대 민간 각지의 신승들이 전하는 사적을 채집하여 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6) 『欽定四庫全書總目』卷145, 《子部五十五·釋家類存目·『불조통기』五十四卷浙江巡撫探進本》, “宋僧志磐撰. 志磐咸淳中住四明東湖. 是書詳載天台一宗源流. 其凡例稱, 政和中僧元穎作《宗元錄》, 慶元中吳克己作《釋門正統》, 嘉定間僧景遷因克己之書作《宗源錄》, 嘉熙初僧宗鑒又取《釋門正統》重修之. 志磐以其皆未盡善, 乃參取諸書, 撰爲此編. 以諸佛諸祖爲本紀八卷, 以諸祖旁出爲世家二卷, 以諸師作列傳十三卷, 又作表二卷, 志三十卷, 全仿正史之例. 大旨以教門爲正脈, 而蓮社淨土及達摩, 賢首, 慈恩, 灌頂, 南山諸宗僅附見於志. 斷斷然分門別戶, 不減儒家朱, 陸之爭. 至所稱上稽釋迦生之日, 下距法智息化之年, 一佛二十九祖通爲本紀, 以系正統, 如帝王正寶位而傳大業. 如謂已超方外, 則不宜襲國史之名; 如謂仍在寰中, 則不宜擬帝王之號. 雖自尊其教, 然僭已甚矣.”

『불조통기』는 남송의 승려 지반(志磐)이 편찬한 불교 사서이다. 지반은 천태종 산가파(山家派)의 승려로 남송 말기에 살았다. 천태종은 송나라 초에 부흥했지만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홍법호교(弘法護教)가 지반이 『불조통기』를 쓴 주된 동기였다. 천태종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사(正史)의 기전체(紀傳體)를 활용하고, 더 많은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혁신하기도 했다. 『불조통기』는 매우 높은 문헌적 가치가 있다. 편찬할 때 불교 내전과 세속 외전을 포함한 많은 전적을 참고하고 인용하였다. 『법운통새지(法運通塞志)』는 『불조통기』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자 그 문헌적 가치를 결정짓는 열쇠로, 그 사료적 출처는 주로 외전(外典)이며, 대부분 당시 볼 수 있었던 관수(官修) 혹은 사수(私修) 사서(史書)이다. 『법운통새지』의 문헌적 가치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사료적 가치. 문헌에는 불교, 특히 송나라 때의 불교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 정사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비교조사. 같은 사건에 대하여 『법운통새지』의 기록은 정사의 기록과 달라 연구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up>17)</sup> 이것이 또한 『불조통기』의 문헌적 가치이면 따라서 『불조통기』가 여러 중국불교 문헌 가운데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II. 大聖慈寺의 창건과 정증무상

남송 지반의 『불조통기』에 대성자사의 창건 연유가 비교적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17) 孫敬陽, 『『佛祖統紀』文獻價值研究』, 석사학위논문, 河北大學, 2013, 7~82쪽.

(지덕) 2년(757) 정월에 안녹산의 아들 경서(慶緒)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립하였다. 9월에 부원수 곽자의(郭子儀)가 안경서를 격파하고 장안으로 돌아왔다. 황제는 성도(成都)에 머물렀는데, 내시 고력사가 성남시의 승려 영간(英幹)이 넓은 거리에서 죽을 보시하여 굶주린 이들을 구하면서, 국운이 다시 맑아지고 강토를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동쪽에 절을 세워 나라의 복을 빌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황제가 직접 대성자사 현판을 썼고 천 이량의 쌀을 하사하였다. 신라 전선사에게 규제(規制)를 세우도록 명하였는데, 모두 96원, 8천 5백 구역이었다. 전선사는 후에 지주(池州) 구화산(九華山)으로 가서 좌서(坐逝)하였는데, 온몸이 썩지 않고, 뼈가 쇠사슬처럼 굳었으며, 나이가 아흔아홉이었다.<sup>18)</sup>

고력사가 영간의 창건 의사를 상소한 후, 현종은 이 절에 대성자사라는 액(額)을 하사하여 공식 사액(賜額)을 가진 사찰이 되었고, 그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성자사를 건립하기 위해 규제(規制)를 세우고 임명된 자는 신라 전선사(全禪師)이다. 그러면 이 전선사는 대성자사가 실제로 운영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남송 범성대(范成大, 1126-1193)의 「성도고사명필기(成都古寺名筆記)」<sup>19)</sup> 중 대성자사에

18) 志磐, 『佛祖統紀校注』 卷41, 「法運通塞志第十七之七·唐肅宗至德二載」, 955쪽.  
“(至德)二載正月, 祿山子慶緒殺其父自立. 九月, 副元帥郭子儀破慶緒, 復京都. 上皇駐蹕成都, 內侍高力士奏城南有僧英幹於廣衢施粥以救貧餓, 願國運再清, 克復疆土, 欲於府東立寺, 爲國崇福. 上皇說, 御書大聖慈寺額, 賜田一千畝; 敕新羅全禪師爲立規制, 凡九十六院, 八千五百區. 全禪師後往池州九華山坐逝, 全身不壞, 骨如金鎖, 壽九十九.”

19) 남송 범성대(范成大, 1126-1193), 중국 남송의 정치가, 문인. 자는 치능(致能). 호는 석호(石湖). 시호는 문목공(文穆公). 소주(장쑤성)의 사람. 소흥 24년(1154)의 진사로 효종(孝宗, 재위 1162~1189)의 신임이 두터웠고, 국사로서 금(金)에 파견되었다. 시는 남송 사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전원풍의 시를 잘 하였다. 서는 소식(蘇軾). 황정건(黃庭堅)을 배우고, 미불(米芾)의 필의(筆意)를 터득하여 원숙주려

소장된 명화를 기록한 부분에는 ‘김화상(金和尚)’이라 불리는 또 다른 승려가 언급되어 있다.

중삼문(中三門)에서 북쪽으로 수륙원, 동쪽으로 여의선과 정각원에 이른다. 모두 고역사와 승려 영간이 함께 지었다. 앞 건물의 동쪽 벽화에는 사찰을 만든(起寺) 자인 김화상과 고역사의 형상이 있다. 모두 고적이다.<sup>20)</sup>

고역사와 영간은 대성자사의 창건 청원에 참여하였는데,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이 이 절의 수륙원 등 별원 건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화상은 고역사와 함께 나란히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기사(起寺)’라는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보아, 김화상도 대성자사 창건 단계의 주요 참여자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불조통기』의 기록과 대조하면, 남송의 문헌에서 대성자사를 창건한 이는 신라 전선사와 김화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수나라에 이르자 사원 건립은 무작위에서 질서 있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북위 문성제(文成帝)에서 시작하여 수문제에서 발전하여 당대에 성숙하였다. 당나라 불교 사찰의 흥치(興置)는 더욱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조정의 명에 따라 각 주(州)에서 사찰을

---

(円熟週麗)의 서풍으로 완성했다. 『증불조선사시비(贈佛照禪師詩碑)』, 『석호거사시집』 등이 있다. 범성대의 ‘청두고사명필기’는 지금까지 보존된 청두사원의 회화 활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청두 대성자사의 화적은 직접적인 1차 사료로 활용된다. 성도고사명필기는 대성자사의 화가명을 전문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찰의 각 전원에 남아 있는 불교 벽화를 기술하고 있다.

20) [南宋]范成大, 「成都古寺名筆記」, 『全蜀藝文志』, 北京: 線裝書局, 2003), 卷42, 1262쪽. “自中三門北至水陸院, 東至如意輪, 正覺院. 係高力士同僧英幹建……前廡東壁畫起寺金和尚, 高力士像, 古跡.”

건립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정하는 것이다. 즉, 급액은 제한되어 있다.<sup>21)</sup> 당나라 때 사찰을 창건하려면 조정(朝廷)에 먼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다. 사찰의 명칭도 조정에서 수여하는 것이면, 즉 급액(給額)이다. 당나라의 어사(御賜) 명액(名額)은 ‘명’을 하사하는 것[賜名]과 ‘액’을 하사하는[給額]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사명(賜名)이란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사하신 것이면, 급액은 합법적으로 사찰을 설립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이다. 당나라 백성들의 종교생활에서 제왕이 사액한 사원을 칙액사원(敕額寺院) 또는 유액사원(有額寺院)이라 부르며 합법적으로 창건된 사찰이다. 이와 대립되는 것은 무액 사찰, 즉 사적으로 세워진 불법사찰이다. 국가는 관립(官立) 사찰[칙액사원, 유액사원]에 대해 항상 전장(田莊)과 재산을 하사한다. 이와 반대로 국가적 급액을 받지 못한 모든 사찰을 난약(蘭若)이나 불당(佛堂)이라 불렀지 사찰이라 칭할 수 없었다.<sup>22)</sup> 급액이 없는 사찰은 국가 사관(寺觀)의 적장(籍帳)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히 관사에 비해 지위가 낮아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사찰을 위해 청액(請額)을 했는데,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나섰다. 하나는 명성이 높은 도사(道士)나 명승(名僧)이 나서서 것이다.<sup>23)</sup> 둘째는 지방 장관이나 직급이 높은 관원이 나서서 신청하는 것이다.<sup>24)</sup> 이런 점에서 누구나 액을 신청하고 규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성자사 창제자(創制者)의 기록에서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대성자사 규제 창립자의 신분은 무엇인가? 둘째, 왜 이런 대규모 사찰의 규제를 승려에게 맡겼을까?

21) [宋]宋敏求, 『唐大詔令集』, 北京: 商務印書館, 1959, 1357쪽.

22) [宋]司馬光, 『資治通鑒』, 北京: 中華書局, 1956, 8017쪽.

23) [宋]李昉, 『太平廣記』, 北京: 中華書局, 1961, 638쪽.

24) [清]董誥, 『全唐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4224쪽.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청두의 정중사에 주재한 신라 입당구법승 무상의 전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상과 대성자사의 관계에 대한 기술은 북송 찬영(贊寧, 919-1101)의 『송고승전』 권19 「당 성도 정중사 무상 전唐成都淨衆寺無相傳」에서 볼 수 있다.

무상 대사는 본래 신라국의 사람이니 그 나라 임금의 셋째 아들이다. 본국의 정삭正朔 연월에 태어났다. 군남사郡南寺에서 머리를 깎고 계戒를 받았으며 개원開元 16년(728)에 동쪽바다에 배를 띄워 중국에 이르렀다. 중국 서울에 도착하니 현종이 그를 불러보고서 선정사禪定寺에 있게 하였다. 뒤에 촉蜀의 자주資州에 들어가서 지선智洗 선사를 뵈었다.

처적處寂이라는 신이한 사람이 있었으니, 일찍이 측천무후가 그를 궁으로 불러 만나보고 마납사조磨納九條의 가사를 하사한 일이 있었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알아서 빗나감이 없었다. 무상 대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처적이 말하기를 “외국에서 온 손님을 내일이면 만나보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쓸고 닦기를 깨끗이 하여 기다려라.” 하였는데, 다음 날 무상이 과연 이르렀다. 처적이 무상에게 ‘무상’이라는 법호를 주었고, 그날 밤중에 마납磨納 가사를 신표로 주기까지 하였다……그 뒤 무상은 성시城市로 들어가서 낮에는 무덤 사이에서 공부하고 밤이면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는 등 참으로 두타頭陀[고행]의 행을 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점차 존중을 받았다. 그를 위하여 무덤 앞에 절을 지어주는 이가 있었고, 장사長史 장구겸경章仇兼瓊이 와서 알현하였다.

당나라 명황明皇이 안사安史의 난리를 피하여 촉에 왔을 적에 무상을 맞아 내전에 모셔 들이며 공례供禮하였다. 당시 성도 현령 양익楊翬이 무상을 요혹하는 증으로 의심하여 쫓아와서 장사 20여 명에게 끌어내게 했다. 무리들이 무상의 몸 가까이 이르자 모두 떨면서 실신하였다. 곧 강풍이 갑자기 불어와 모래와 돌을 날려서 바로 청사로 들이닥쳐서 주렴을 걷어치우고 천막을 날렸다. 이를 본 양익이 무상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 절하여 엎드리고 감히

말을 못하다가 참회가 끝나고서야 바람이 그쳤기에 무상을 옛 처소로 정중하게 모셔 보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단월檀月들에게 권하여 정중사淨衆寺와 대자사大慈寺와 보리사菩提寺와 영국사寧國寺 등을 지었다.<sup>25)</sup>

현종과 무상이 만난 것은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현종이 성도로 피난갔을 때였고, 대성자사(대자사) 창건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 『송고승전』과 『신수과분육학승전』에 실려 있는데, 대성자사 창건 주체 설명에 조금 차이가 있다. 『신수과분육학승전』에서는 단월들이 모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천보(742-756) 말년에 옛날의 인연으로 황제의 행재소에서 알현하였다. 성도 현령 양익이 무상을 요망하다고 여겨 병사들에게 체포하라 하였다. (중략) 그리고 나서 단월들이 사방에서 모였다[乃已檀越四舍]. 그리하여 정중사 대자사 보리사 영국사 등의 가람이 만들어졌다.<sup>26)</sup>

25) 贊寧, 『宋高僧傳』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6~487쪽. “釋無相, 本新羅國人也, 是彼土王第三子, 於本國正朔年月生, 於郡南寺落髮登戒. 以開元十六年泛東溟至于中國, 到京. 玄宗召見, 隸於禪定寺. 後入蜀資中, 謁智詵禪師. 有處寂者, 異人也, 則天曾召入宮賜磨納九條衣, 事必懸知, 且無差跌. 相未至之前, 寂曰: 外來之賓, 明當見矣, 汝曹宜洒掃以待. 間一日果至, 寂公與號曰無相. 中夜授與磨納衣. ……後來入城市, 晝在冢間, 夜坐樹下. 眞行杜多之行也. 人漸見重, 爲構精舍於亂墓前. 長史章仇兼瓊來禮謁之, 屬明皇違難入蜀, 迎相入內殿, 供禮之. 時, 成都縣令楊翌, 疑其妖惑, 乃帖迫至, 命徒二十餘人曳之. 徒近相身, 一皆戰慄, 心神俱失. 頃之大風卒起, 沙石飛颺, 直入廳事, 飄簾卷幕. 楊翌叩頭拜伏, 踣而不敢語. 讎畢風止, 奉送舊所. 由是遂勸檀越造淨衆, 大慈, 菩提, 寧國等寺.”

26) 『卍續藏』77, 「新修科分六學僧傳」권30, 341쪽, “新羅國王之子也. 開元十六年. 汎海舶東至京師. 旣廷對, 詔隸禪定寺. 後入蜀之資中. 謁智詵禪師. 有契悟. 先見異僧處寂. 知其來厚遇之. 且授以則天所賜磨納九條衣. 囑之曰. 幸毋相忘. 因遁居溪谷間. 每燕坐輒五日. 始出定. 偶一夕有二黑犢. 交角跪牀下. 稍復移近. 忽覺一手毛而甚冷. 自相袖入. 捫摸至腹. 又嘗大雪昉霽. 二虎餓劇外來. 相

민영규는 “송고승전은 그의 무상전에서 신이승 무상에 대한 당시 성도 현령 양익의 전폭적인 귀의가 정중사를 비롯하여 대자사, 보리사, 영국사 그밖에 많은 사원과 종탑을 일으키게 되기까지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여 정중사, 대자사의 창건이 양익의 귀의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sup>27)</sup> 무상 기록을 비교 분석한 김진무도 “성도 현령 양익은 처음에는 무상을 의심하였으나 도리어 귀의하여 정중사 대자사 보리사 영국사 등을 건립하는데 도왔다고 한다”고 하였다.<sup>28)</sup>

『송고승전』에서 단월에게 권하였다고 되어 있고, 『송고승전』의 문맥상 단월에게 권한 주체를 현종이 아니라 성도 현령 양익으로 봐야 할 것과 같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 배후에는 현종과 무상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월들에게 권한 실제적인 주체는 무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대성자사 건립에 있어 무상의 역할이 보다 중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대성자사의 건립은 무상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위의 사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양익은 지방 현령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

爲循撫。驟臥其前以待啖。虎則徧嗅首足而去。久之。髮長衣弊。獵者疑其非人類。將射而復輟。天寶末。以故舊。見上皇行在所。成都縣令揚翌以爲妖。命吏逮。吏之至者。皆戰慄莫能前。大風卒起。沙石穿簾幕。飄擲聽事。翌懼扣頭悔罪。乃已。檀越四合。於是淨衆大慈菩提寧國等伽藍作矣。而獨常居淨衆後院云。尋鑿寺前地爲小池二。曰左羹右飯也。缺資費則淘浚之。以來供施屢驗。樹浮圖門外。尤峻拔。植檉柏其下曰。柏齊浮圖寺當毀。會昌之變。始信。或有以樵爨願役寺中。而不取傭直者。然亦不識其何自而至也。蓋相之出家而入中國也。諸兄亦喪逝隨盡。國人乃立其弟。其弟常恐相歸以廢己。使客至成都。狙刺相。一夕樵爨者。得而殺之。竟遁去。相聞而歎曰。仇對有在。於我乎何累焉。至德元年五月十九日。無疾而終。春秋七十七。塔號東海大師。乾元間。刺史韓沘撰碑。”

27) 민영규, 『사천강단』, 又半, 1994, 42쪽.

28) 김진무, 「정중종의 법계의 그 선사상」, 『선학』 44, 2016, 103쪽.

특히 무상은 황제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가졌으며 일반 승려가 아니었다.<sup>29)</sup> 그래서 양익이 모금을 권유한 것은 뒤에 현종의 허가와 무상의 위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상에 관한 기록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무상의 성씨가 ‘김’으로 신라 출신이며, 당시 신라왕의 셋째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지덕 원년(756) 건오월 19일에 사망하였다고 하는데,<sup>30)</sup> 대성자사는 현종이 피난할 때(756~757) 창건되어 무상은 이 절의 낙성을 볼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러나 당대종(唐代宗) 대력(大曆) 9년(774)의 돈황본 『역대법보기』에 기록된 무상의 행적은 이와 약간 차이가 있다. 돈황본 『역대법보기』에는 무상 대사가 당숙종(唐肅宗) 보응(寶應) 원년(762) 5월 19일, 79세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엄경망(嚴耕望)은 ‘지덕원재(至德元載)’에 대해 공식 기록에서 간지(干支)로 달을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고승전』에 기록된 무상의 졸년(卒年)은 잘못되어서 사실은 ‘보응원년(寶應元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2)</sup>

『송고승전』에는 무상이 신라 국왕의 셋째 아들인데, 입축(入蜀)한 후 그 동생이 신라 왕으로 신임되었기 때문에 무상이 귀국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 무상을 암살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sup>33)</sup> 그러나 무상은 개원 16년(728)에 당나라에 들어왔으니, 당시 신라 성덕왕(?-737, 702-737 재위)이 26년간 재위하고 그 뒤를 이은

29)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中國佛教文化研究論集』, 臺北: 東初出版社, 1990, 49~50쪽.

30) 贊寧,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8쪽.

31) 『中國佛教叢書·禪宗編』 권2,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177~197쪽.

32) 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嚴耕望史學論文集』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955쪽.

33)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7쪽.

효성왕(?-742, 737-742 재위), 그리고 경덕왕(?-765, 742-765 재위) 기간과 비교하면, 무상의 나이가 너무 많아 왕권에 위협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역대법보기』는 신라 왕족으로 무상이 기록될 뿐 자객의 암살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또한 당나라 이상은(李商隱, 813-858)은 선종宣宗 대종 7년(853) 11월에 「당재주혜의정사남선원사증당비명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을 지었는데, 무상을 ‘진한현족辰韓顯族’이라 칭하고 무상을 왕자로 지목하지 않았다.<sup>35)</sup> 이상의 기록들로 보아, 적어도 무상의 속성은 김씨이고,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과 대성자사의 창건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에 엄경망(嚴耕望)은 ‘전 선사’의 고증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엄경망의 연구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엄경망은 신라 최치원崔致遠(857-?)의 「大唐新羅國故鳳巖山寺教諭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을 인용했다.

혹 중원에서 득도하고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 득법(得法)한 뒤 돌아왔는데, 거두(巨頭)가 된 사람을 손꼽아 셀 만하다. 중국에 귀화한 사람으로는 정중사(靜衆寺)의 무상(無相)과 상산(常山)의 혜각(慧覺)이니, 곧 선보(禪譜)에서 익주김(益州金)·진주김(鎭州金)이라 한 사람이다.

(或劔化延津, 或珠還合浦, 爲巨擘者, 可屈指焉. 西化則靜(淨)衆無相, 常山慧覺, 禪譜益州金, 鎭州金者).

34) 拜根興, 『唐朝與新羅關係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169~170쪽.

35) 『樊南文集』補編 卷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唐梓州慧義精舍南禪院四證堂碑銘」, 820쪽.

이 부분의 '익주김益州金'에 대해 엄경망은, 『불조통기』의 '전선사'는 '김선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 선사가 신라인 신분으로 대규모 사찰 계획을 주관한 것은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당나라 비관경(費冠卿)의 『구화산 화성사기九華山化城寺記』에는, 승려 지장(地藏)이 신라 왕자의 근속이며, 99살에 당덕종(唐德宗) 정원 10년(794)에 시적하였는데 죽은 후 몸이 굳어 “골절을 움직이니 쇠사슬을 흔드는 것 같다[舉動骨節, 若撼金鎖]”고 기록되어 있다. 『송고승전』의 「당지주 구화산 화성사 지장전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에서 지장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비관경(費冠卿)의 글을 인용하였으나, 다만 지장의 출년이 '정원 19년(803)'이라고 수정하였다. 엄경망(嚴耕望)은 「지장전」 중의 지장의 행방, 연세,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 모두 『불조통기』의 전선사(全禪師)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비관경은 헌종(憲宗) 원화(元和) 8년(813)에 글을 썼는데, 지장의 출년과 비교적 가까웠으며, 또한 비관경은 당시 구화산에 있었으므로 만일 지장이 성도에 절을 주관하였더라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반이 실수로 전선사와 지장의 기록을 하나로 합쳤다는 것이다.<sup>36)</sup>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 전선사의 사적이 지장의 사적으로 혼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선사는 김선사의 오기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라 입당구법승 무상이 지덕 2년(757) 경에 성도(成都)에서 활동하였으며, 당현종의 신임을 받았고, 규제를 세우라는 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

36) 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嚴耕望史學論文集』 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958쪽; 崔致遠, 「大唐新羅國故鳳巖山寺教諡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唐文拾遺』 卷44,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7, 10874쪽; 費冠卿, 「九華山化成寺記」,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卷817, 4134쪽; 『宋高僧傳』 卷20, 「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 516쪽.

는 대성자사의 건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이 곧 신라 전선사, 즉 익주 김선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무상은 신라 왕족으로, 당 현종이 피난할 때 대자사의 건립 과정에서 규제를 세우라는 명을 받아 받기부터 입제(立制)까지 무상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Ⅲ. 정증무상과 당현종

왜 당현종이 정증무상에게 규제를 세우라는 명을 내렸을까? 무상은 현종과 두 차례 접촉하였는데, 『송고승전』을 인용한 「무상본전」에 따르면 무상은 당(唐)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종의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현종이 성도로 피난했을 때, 무상은 이미 성도로 들어가 한동안 신도들이 지어준 정사에서 살았다. 당시 익주장사(益州長史) 김남절도사(劍南節度使)였던 장구겸경(章仇兼瓊)의 추천으로 무상은 현종과 다시 만나 내전에서 예물을 받았다. 그러나 현종이 촉(蜀)에 있는 동안 절도감남자(節度劍南者)는 사실 최원(崔圓, 705-768)이었고, 장구겸경(章仇兼瓊)이 이 직책을 맡은 것은 개원 27년(739)에서 천보 5년(746) 사이였으므로, 여기에 추천자를 장구겸경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sup>37)</sup> 무상의 입적 시간을 대조하면 장구겸경과 무상이 알게 된 시간은 개원 27년(739) 12월부터 28년(740) 사이가 된다. 이는 무상이 장구겸경의 초청을 받아 20여 년 동안 정증사에 거주했다는 『역대법보기』의 기록과 부합한다. 현종이 무상을 부른 것은 피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행한 것으로 여겨진다.<sup>38)</sup>

37) 吳廷燮, 「劍南西川」, 『唐方鎮年表』 卷6, 北京: 中華書局, 1980, 960~963쪽.

무상이 현종의 신임을 받는 것은 주로 현종의 도술에 대한 흥미에 따른 것이다. 현종의 이러한 경향은 당 황실과 도교의 오래되고 긴밀한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당나라 황실은 건국 초기에 노자를 추존하여 조상으로 삼아 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였다.<sup>39)</sup> 개원 연간(713-741)에 현종은 도교를 이용하여 정권의 합법성을 선전하던 이전의 당나라 조정의 정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불·도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불교에 대한 정책은 엄격하였다. 천보(天寶) 시기(742-756)에 이르러 그는 도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면 황실에 대하여 선조 노자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제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예제(禮制)에서 태청궁(太清宮) 제사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과 과거(科擧)에서 도교에 더 큰 비중을 두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종은 보기 드문 도교 통치 모델을 수립하였다.<sup>40)</sup> 이외에 현종은 구궁귀신(九宮貴神), 오룡사(五龍祠) 등 새로운 도교 제사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러한 제사 대상을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시켰다.<sup>41)</sup> 당현종은 불교의 의리가 아니라 승려의 도술에 관심이 있었다.<sup>42)</sup>

8세기에 세 명의 인도 승려 선무외(善無畏, 637-735), 금강지(金剛智, 671-741), 불공(不空, 705-774)이 체계화된 밀종을 중국에 전래하여 기우, 치병 및 호국의 이야기를 많이 남겼으며, ‘개원삼대사(開元三大士)’라고 불

38)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中國佛教文化研究論集』, 臺北: 東初出版社, 1990, 48~49쪽.

39) 孫克寬, 「唐代道教與政治」, 『寒原道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59~74쪽.

40) T. H. Barrett 著, 曾維加譯, 『唐代道教 - 中國歷史上黃金時期的宗教與帝國-』, 濟南: 齊魯書社, 2012, 39~56쪽; 金子修一著, 徐璐·張子如譯, 『中國古代皇帝祭祀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2018, 243~260쪽.

41) 雷聞, 『郊廟之外 - 隋唐國家祭祀與宗教-』,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 308~310쪽.

42) Stanley Weinstein 著, 張煜譯, 『唐代佛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55~59쪽.

리기도 하였다. 그중 현종에게 법술을 펼친 행적이 적지 않다.<sup>43)</sup> 현종은 국가나 그 개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때로 선무외 등의 법력을 이용하였다. 선무외 등이 행한 법술은 장생과 국가의 평안을 열렬히 추구하는 현종에게 어느 정도 흡인력이 있었다.<sup>44)</sup>

유념할 것은 무상의 관련 기록에도 감통 행적이 수록되어 있고,神通(神通)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법보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스승을 찾아 도를 물으며, 주유(周遊)하여 자주의 덕순사(德純寺)에 가서 당화상(唐和上)에게 예배를 드렸다. 화상에게 병이 있어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되자, 한 손가락으로 등불을 만들어 당화상에게 공양하였다. 당화상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곁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하였다. 후에 천곡산(天谷山)에 살다가 덕순사에 이르자, 당화상이 가인(家人) 왕굉(王鎰)을 시켜 가사신의(袈裟信衣)를 보내며, “이 가사신이는 달마조사가 전한 의복으로, 측천무후께서 지선(智詵) 화상한테 주고, 지선 화상이 내게 주신 것인데 오늘 너에게 부촉한다.”고 하였다. 김화상은 법과 신의(信衣)를 얻어 곡산 돌바위 밑에 거처하여 초의를(草衣) 입고 음식을 절제하였으며 먹을 것이 없으면 흙을 먹었는데, 위엄 있는 짐승이 그를 호위하였다.<sup>45)</sup>

43) 周一良, 『唐代密宗』,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1996, 15~96쪽.

44) 林韻柔, 「五臺山與文殊道場 -中古佛教聖山信仰的形成與發展-」, 臺北: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博士論文, 2009, 126쪽.

45) 『歷代法寶記』, 『中國佛教叢書·禪宗編』 2, 177~197쪽. “尋師訪道, 周遊涉歷, 乃至資州德純寺, 禮唐和上. 和上有疾, 遂不出見. 便然一指爲燈, 供養唐和上. 唐和上知其非常人, 便留左右二年. 後居天谷山, 卻至德純寺. 唐和上遣家人王鎰, 密付袈裟信衣, 此衣是達摩祖師傳衣, 則天賜與詵和上, 詵和上與吾, 吾今付囑汝. 金和上得付法及信衣, 遂居谷山石巖下, 草衣節食, 食盡嘔土, 威猛獸護衛.”

『송고승전』 「당 성도 정중사 무상전(唐成都淨衆寺無相傳)」에도 이 일이 실려 있으나, 다만 내용이 약간 다를 뿐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처적(處寂)이 밤중에 마납(磨納) 가사를 주었다. 이러한 뒤에 무상 대사는 깊은 골짜기 바위 밑에서 좌선을 하였는데, 검은 송아지 두 마리가 뿔을 맞대어 참선하는 곳에 들이닥쳐서는 무상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 그 송아지들의 털이 무상의 소매 속까지 들어왔는데 서늘하기가 얼음 같았다. 무상의 몸을 문대고 핥아 배까지 이르렀지만, 무상은 조금도 몸이 기울어지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무상은 이렇게 선정에 들면 대개 닳새를 한도로 하였다. 어느 날 눈이 몹시 내리자, 맹수 두 마리가 왔다. 무상은 스스로 몸을 깨끗이 씻고 별거벗어 그 짐승들의 앞에 드러누워서 자기 몸을 보시하려 하였더니, 그 맹수들이 무상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냄새를 맡으며 빙빙 돌다가 가버렸다. 또는 가끔 밤중에 좌상(坐牀) 밑에서 호랑이의 수염과 털을 만지기를 여러 번 하였다. 무상이 이렇게 산에서 지내는 것이 오래됨에 옷은 떨어지고 머리털이 길어지자, 사냥꾼들이 그를 짐승으로 여겨 활로 쏘려다 그만두기도 했다.<sup>46)</sup>

무상 관련 기록 중 『역대법보기』는 중·만당(中晚唐) 시기에 유행하였는데, 선종의 역사를 소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사(燈史)’에 속한다. 그 내용을 보면 보리달마에서 육조 혜능(638-713)의 전법 순서를 먼저 적고, 이어서 처적·무상 등의 전승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책의 무상에 대한 기록은 선수(禪修)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기한 행적도 포함하고 있다.

46)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6~487쪽. “(處寂)中夜授與磨納衣, 如是入深溪谷巖下坐禪, 有黑犢二, 交角盤礴於座下, 近身甚急, 毛手入其袖, 其冷如冰, 捫摸至腹, 相殊不傾動. 每入定, 多是五日爲度. 忽雪深, 有二猛獸來, 相自洗拭, 躡臥其前, 願以身施其食. 二獸從頭至足, 嗅而而去. 往往夜間坐牀下, 捫虎鬚毛. 既而山居稍久, 衣破髮長, 獵者疑是異獸, 將射之, 復止.”

이상 두 문헌에서 보이는 무상 기록의 공통점은 첫째, 처적과 무상 사이에 가사를 통해 전승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역대법보기』에서 달마조사가 전한 옷이 바로 『송고승전』 「무상전」의 마납의(摩納衣)이니, 보리달마가 입었던 가사를 말한다. 선종의 기록을 보면, 보리달마의 이 옷을 그 문중에서 대대로 전승하였다. 『육조단경』에서는 이 옷이 6조 혜능까지만 전하였다고 하였는데, 『역대법보기』는 이 책에 실린 선사들의 계보가 있는 촉지(蜀地)까지 이어졌다고 연장하였다. 이 의복은 선종에서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법의로 여겨진다.

둘째, 두 문헌 모두 산림에서 좌선하는 무상의 고행에 대해 상술했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무상은 일찍이 천곡산에서 이른바 ‘두다(杜多)’의 고행, 이른바 두타행(頭陀行)에 전념하였다. 선을 닦으면 신통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무상의 선수(禪修)와 감통(感通)의 관계는 『송고승전』의 무상전 분류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무상에 대한 찬영의 기술은 그 감통적인 형상에 있다. 찬영은 감통을 수행에 성과가 있다는 증거로 여긴다. 앞서 인용한 『역대법보기』의 기록을 보면 당대 후반 선종사에서 북송의 승전(僧傳)까지 무상의 선수(禪修)의 업적 못지않게 감통한 사적을 볼 수 있다.<sup>47)</sup>

그리고 두 기록에 모두 무상이 좌선할 때 동물들이 호위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고승의 전기에서 승려와 맹호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초적인 서사를 통해 그 고승을 형상화하는데, 그중에서도 승려가 인자함으로 맹호를 감화시켜 맹호가 야외 수행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상대사는 두 마리의 맹호에게 자기 몸을 공양하려 하였고, 후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무상의 평상 아래에서 같이 있었

47) 楊明璋, 『神異感通化利有情——敦煌高僧傳贊文獻研究』, 臺北: 政大出版社, 2020, 170쪽.

으니, 이는 바로 상술한 관념의 구현이며 또한 승려 신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sup>48)</sup>

무상이 산림을 떠나 성도(成都)에 들어간 후에도 감통 사적을 남겼다.

무상이 성도에 이르렀을 적에 어느 날 역사力士가 자청하여, 힘을 다해 뿔 나무를 하여다가 정중사 승려들의 주방에 쓰이도록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무상의 동생이 본국 신라에서 새로 임금이 되었는데 무상이 본국에 돌아오면 자기의 임금 자리가 위협하다고 여겨, 자객을 보내서 무상을 죽이려고 하였다. 무상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뿔감 하기를 자청한 자가 무상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이상한 객이 올 것이 틀림 없습니다.” 하고, 다시 말하기를 “불자를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칼을 가지고 무상의 참선 자리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벽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기미가 있자, 벌떡 일어나 칼로 치니, 큰 덩치의 몸과 머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방 뒷문에 큰 구멍이가 있었기에 시체를 끌고 가서 파묻고는, 다시 흙으로 자취를 없애고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에 무상은 그 뿔나무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하였으나, 그 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sup>49)</sup>

무상의 동생이 신라 왕으로, 자객을 보내 무상을 암살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그 진위에는 의문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무상이 호법신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무상 대사의 기이한 사적은 대성자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간접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48) 李豐楙, 「慧皎『高僧傳』及其神異性格」, 『中華學苑』 26, 1982, 123~137쪽.

49)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7쪽.

당나라 명황明皇이 안사安史의 난리를 피하여 촉에 왔을 적에 무상을 맞아 내전에 모셔 들이며 공례供禮하였다. 당시 성도 현령 양익楊翬이 무상을 요혹하는 중으로 의심하여 쫓아와서 장사 20여 명에게 끌어내게 했으나 무리들이 무상의 몸 가까이 이르자 모두 떨면서 실신하였다. 곧 강풍이 갑자기 불어와 모래와 돌을 날려서 바로 청사로 들이닥쳐서 주렴을 걷어치우고 천막을 날렸다. 이를 본 양익이 무상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 절하여 엎드리고 감히 말을 못 하다가 참회가 끝나고서야 바람이 그쳤기에 무상을 옛 처소로 정중하게 모셔 보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단월檀月들에게 권하여 정중사淨衆寺와 대자사大慈寺와 보리사菩提寺와 영국사靈國寺 등을 지었고, 성도 밖의 고을들에 지은 절이나 종이나 탑들은 이루다 셀 수가 없다. 무상은 먼저 정중사 본원에 살았으니 후에 송계사松溪寺라고 고친 것이 그것이다.<sup>50)</sup>

이 기록에서 무상은 대성자사의 건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영간(英幹)이 절을 세우겠다고 발원한 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람들은 대성자사의 건립에 무상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법으로 왕권을 수호하는 호국불교 모델은 무상 또는 동 시기의 또 다른 신라 승려 무루(無漏, ?-762)의 행적과 유사하여 당대 중기 황제의 우례(優禮)의 대상이 되었다.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 사회질서가 무너지자 이 파국 속에서 스스로 즉위한 숙종(肅宗)은 불교의 힘을 빌려 반란을 평정하는 데 급급해 불교에 열중했다.<sup>51)</sup> 무상과 무루와 황제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 두 승려는 모두 당나라에 입성한 후 황제의 부름을 받고 공

50) 『宋高僧傳』 卷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487쪽.

51) 『宋高僧傳』 卷21, 「唐朔方靈武下院無漏傳」, 545~546쪽.

양을 받았으며, 모두 감통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 당시 황제의 중용을 받았다. 신라의 입당구법승들이 선을 닦고 신적을 보여주며 왕권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당 현종과 숙종이 국난을 맞아 불교 신들을 통해 호국하는 것에 대한 기원이 불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당현종의 법술에 대한 관심은 승려들의 신통력과의 접촉을 촉진시켰고, 신통(神通)은 현종이 법력의 도움을 구하는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무상은 축 땅에 감통 사적을 적지 않게 남겼고, 신통을 겸한 특질을 보여 현종에게 관심을 갖게 했다. 다시 말하자면 대성자사의 성립과 무상에게 규제를 건립하라고 명한 사적은 안사의 난으로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당나라 불교와 신라의 입당구법승들이 왕권과 교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대성자사의 건립은 당나라 중기에 불교에 대한 관청의 태도에 전환이 일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원래 불교에 대해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던 현종은 태상황으로 퇴위하고 성도로 피난하는 동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해 절을 지어달라는 영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액(賜額)과 천 묘의 받을 하사하는 등의 우대하였다. 그래서 대성자사는 건립 초기에 비교적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한 현종의 지지는 안사의 난으로 국가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은 불법을 빌어 나라를 진호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갈구하였다.

당시 성도에서 현종의 예를 받던 신라의 승려 무상, 즉 신라 전선사(김

화상)는 현종의 요청으로 대성자사를 위해 규제를 건립하는 임무를 받았다. 무상이 현종의 신임을 받은 것은 당에 입당한 후 많은 감통 사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가 밀교의 특질적인 형상을 갖추었기에, 법술에 열광하고 밀교를 지지하는 현종을 끌어들이던 것이다. 이로써 무상은 선학 방면에 영향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감통하는 형상이 황제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법으로 왕권을 수호하는 호국불교 모델은 무상 또는 동 시기의 또 다른 신라 승려 무루(無漏)의 행적과 유사하여 당대 중기 황제의 우례(優禮)의 대상이 되었다.

대성자사는 호국을 기원하는 의미로 창건되었고, 그 설립규제자인 무상대사는 현세의 이익을 강조하는 밀법으로 현종이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건립된 대성자사는 호국의 색채가 짙게 부여되어 관청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서남 제일의 사원이 될 수 있었다.

(2023.11.04. 투고 / 2023.12.14. 심사완료 / 2023.12.14. 게재확정)

[Abstract]

## Foundation of Daeseongjasa Temple and Silla Jeongjung Musang

Kwak, Roe

This study related to Jeongjung Musang, which was active in China's Sichuan Provinc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proportion of free prehistory in the early Seonjongsa Temple, the influence on Tibetan Buddhism, and the free prehistory are being published by Buddhist scholars from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When reviewing the overall trend of studies on Jeongjung Musang in this way, one regret is found. It is that the background explanation of Jeongjung Musang and the foundation of Daeseongjasa Temple is omitted.

Now Daeseongjasa Temple in Chengdu, Sichuan Province, China, was built with the support of Tang Hyeon-jong during the Ansa War and gradually developed into the best temple in the southwest region. It is Jeongjung Musang, the Buddhist monk of Silla, who was ordered to build this temple.

Jeongjung Musang was mentioned 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transmission of the Tang Dynasty's Seon Buddhism, but the relationship I had with Daesungjasa has not been sufficiently illuminated until now. Therefore, in this paper, through Chinese Buddhist literature, we

reviewed the form of gantong of Jeongjung Musang and revealed that this was the reason why we entrusted Jeongjung Musang to build Daeseongjasa Temple in connection with Tang Xuanzong's attitude toward Buddhism.

□ Keyword

Silla, Sichuan, Jeongjung Musang, Tang Xuan-zong, Dashengci-si

[참고문헌]

1. 원전자료

『佛祖統紀校注』 『宋高僧傳』 『歷代法寶記』 『全蜀藝文志』 『全唐文』 『文苑英華』 『唐方鎮年表』  
『唐大詔令集』 『資治通鑒』 『太平廣記』

2. 단행본

불교영상회보 편, 『정증무상선사』, 서울: 불교영상회보사, 1993.  
변인석, 『정증 무상대사』, 한국학술정보, 2009.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京都: 法藏館, 1967.  
鎌田茂雄著, 關世謙譯, 『中國佛教史』, 臺北: 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 1982.  
拜根興, 『唐朝與新羅關係史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  
胡適, 『神會和尚遺集』, 上海: 上海亞東圖書館, 1931.  
馮友蘭, 『中國哲學史』, 上海: 商務印書館, 1935.  
釋印順, 『中國禪宗史』,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2007.  
雷聞, 『郊廟之外——隋唐國家祭祀與宗教』,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  
周一良, 『唐代密宗』,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1996.  
嚴耕望, 『嚴耕望史學論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Stanley Weinstein 著, 張煜譯, 『唐代佛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巴瑞特(T. H. Barrett)著, 曾維加譯, 『唐代道教——中國歷史上黃金時期的宗教與帝國』, 濟南: 齊魯書社, 2012.  
金子修一著, 徐璐, 張子如譯, 『中國古代皇帝祭祀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2018.

『中國佛教叢書·禪宗編』,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

『樊南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楊明璋, 『神異感通化利有情——敦煌高僧傳贊文獻研究』, 臺北: 政大出版社, 2020.

### 3. 논문 및 기타자료

덕림스님(이병진), 「정중 무상 인성염불의 증입원리 고찰」, 『한국선학』 54, 2019.

민영규, 李千石, 「四川講壇: 初期禪宗史和劍南宗」, 『동방학지』 75, 1992.

신정운, 「무상대사(無相大師)와 마조(馬祖)의 사법(嗣法)에 대한 재고(再考) -현실적인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하다-」, 『禪文化研究』 12, 2012.

이규완, 「정중 무상의 선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준규, 「新羅 淨衆 無相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광균(법상),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 - 정중무상을 중심으로」, 『정토학연구』 34, 2020.

조용현, 「정중무상(淨衆無相)의 능엄선(楞嚴禪) 연구(研究)」, 『백련불교논집』 5, 1996.

차차석, 「정중무상의 인성염불과 청화선사의 염불선」, 『禪文化研究』 18, 2015.

冉雲華, 「東海大師無相傳研究」, 『中國佛教文化研究論集』, 臺北: 東初出版社, 1990.

嚴世偉, 「山林與僧侶——從無相和無住的頭陀行看巴蜀的佛教地理」, 『唐研究』 26, 2021.

李之純, 「大聖慈寺畫記」, 『成都文類』 卷45, 北京: 中華書局, 2011.

大西修也, 「成都万仏寺(淨衆寺)の開基と新羅國僧無相について」, 『美術史研究』 9, 1972.

孫克寬, 「唐代道教與政治」, 『寒原道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林韻柔, 「五臺山與文殊道場——中古佛教聖山信仰的形成與發展」, 臺北: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博士論文, 2009.

李豐楙, 「慧皎『高僧傳』及其神異性格」, 『中華學苑』 26, 1982.

孫敬陽, 「『佛祖統紀』文獻價值研究」, 석사학위논문, 河北大學, 2013.